

##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이 탄생되기 전후의 맥락

- 누미노제 개념의 기원을 찾아서

최정화\*

- I. 서론
- II.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 개념의 기원
  - 1. 「성스러움」과 누미노제
  - 2. 누멘적 감각(Sensus Numinis)
  - 3. 루돌프 오토의 북아프리카 여행이 가지는 의미
  - 4. 종교학사적인 설명:  
자연주의적인 진화론 대 자연주의적 누미노제
- III. 결론

### I. 서론

오래된 현상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면서, 빛바랜 현상에 대해서 참신한 시각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름 붙이기'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적 명명 이상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이름붙여진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종교학의 역사에서 그러한 새로운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종교'라는 오래된 현상에 새로운 의미의 뉘앙스를 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루돌프 오토(1869-1937)의 경우가 그 중 하나이다. 그가 종교학사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종교'를 지칭하는 참신한 언어 사용으로 '성스러움'이나 '신'과 같은 활력없는 용어를 대체하면서 옛 이름에 덮여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특징적인 면들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조직 신학자였던 루돌프 오토를 일약 세계적인 종교 철학자로 유명하게 만든 책 한 권은 『성스러움. 신관념에서 비합리성과 그것이 합리성과 갖는 관계(Das Heilige. Ü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öttlichen und sein Verhältnis

\* 서울대학교

*zum Rationalen)*이다. 일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17년에 출간된 이 책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팔리고 널리 읽힌다는 의미에서의 ‘성공한’ 종교 이론서이다. 이 책에서 오토는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인간의 감정과 심리상태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종교적 체험을 하는 (오토식대로 표현하자면 ‘성스러움’과 대면하는) 인간의 초합리적인 감정의 특징을 명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누멘적인 것’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누미노스(numinös, numinos)’가 그것이다. 이 형용사 ‘누멘적인 것’, ‘누멘스러운 것’ 앞에 정관사(das)를 붙여서 명사화시킨 것이 ‘누미노제(Das Numinöse, Das Numinose)’이다.

『성스러움』의 핵심 개념인 ‘누미노제’라는 용어와 그에 대한 생각은 오토의 창작물일까? 그의 전유물이라면 오토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오토 이전에 있었던 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개념일까? 본 논문은 오토가 『성스러움』에서 사용한 이 ‘누미노제’의 기원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 물음을 가지고 첫번째, 오토가 스스로의 저작물에서 밝히는, 누미노제 개념에 대한 그 자신의 기원적 설명을 근거삼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성스러움』은 여러 번의 개정판을 거치면서 각주가 보충되었고 새로운 논문들이 첨가되었다. 누미노제와 관련된 첨가 논문들은 1923년과 1932년에 독립된 책으로 출판되었다. 본고가 오토에 대한 논의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이다. 『성스러움』에만 집중해서 논의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시야를 넓혀서, 그 작품을 보충하는 논문들을 통해서 작품이 쓰여진 맥락을 이해하고, 오토가 사용한 개념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논의의 근거로 삼는 것이 오토의 저작물이라면 두 번째는 『성스러움』을 둘러싼 일종의 학문적인 영웅담이다. 오토가 즐겨 말하던, 그리하여 그와 함께 근무하던 독일 마부르크 대학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1911년의 여행담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누미노제 개념과 『성스러움』의 탄생에 대한 종교학사적인 설명이다. 오토는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당대의 지배적인 이론에 반대하면서, 종교의 본질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성스러움』과 이후의 보충 저서들을 집필했다.

본문에서 우선 누미노제라는 용어의 어원과 『성스러움』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것의 선행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누멘적 감각’으로 논의를 전전시킨다. 작품사(Werkgeschichte) 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성스러움』이 여러 번 개정판을 거치면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누멘적 감각’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그

다음으로 『성스러움』을 구상했다고 알려진 북아프리카 여행에서 오토가 체험한 것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종교학사에서 진화론에 반대되는 지점에 오토를 위치시켜 보고자 한다.

## II.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 개념의 기원

### 1. 『성스러움』과 누미노제

『성스러움』에 따르면 누미노제는 “가르쳐질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끼려고 하거나, 내부적인 각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up>1)</sup>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 누미노제가 『성스러움』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 책의 특징적인 한 단락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이 누멘적 공포의 원시적이고 거칠은 시초적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 보기로 하자. ‘귀신에 대한 공포’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누멘적 공포는 그것의 소박하고 거칠은 첫번째 술령임으로서의 이른바 ‘원시인들의 종교’가 지난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공포와 그 소산인 환상적 형상들은 나중에 바로 이 신비스러운 충동, 즉 누멘적 감정의 더 높은 단계들과 발전 형태들을 통하여 극복되고 제거된다. 그러나 비록 그 감정이 더 높고 순수한 표현에 도달한지 오래라 하더라도 그 감정의 원초적 술령임들은 언제나 또다시 영혼으로부터 소박하게 터져나올 수 있고 새롭게 체험될 수 있다. 도깨비나 유령 이야기들의 ‘무시무시함’이 전반적으로 높은 심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매력과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놀라운 점은 ‘챙기는 것’ 앞에서의 이 독특한 공포는 자연적인 공포나 경악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신체적 반응을 자아낸다는 사실이다. “찬물을 끼얹듯 소름이 끼친다”라는 “등골이 오싹하다”라는 표현들은 이것을 말해 준다. 오싹함이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다. 더 날카로운 심적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공포’가 자연적 공포와 비교해 볼 때 단지 그 정도와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거나 혹은 그것이 유별나게 강도를 지닌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본질은 강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때로는 너무 강해서 우리의 골수를 파고들며 머리카락이 치솟고 사지가 떨리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약한 자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엄습했다가는 곧 사라지기도 한다.<sup>2)</sup>

1) Rudolf Otto, *Das Heilige. Ü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öttlichen und sein Verhältnis zum Rationalen*, München: C. H. Beck, 1963[1917], p. 7. 지금 통용되는 독일어 『성스러움』은 초판 1917년의 35쇄인 1963년 판이다.

오토는 '성스럽다'는 말이 시간을 거치면서 윤리화되고 합리적으로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함의하는 본래적인 중요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성스러운 것'의 특정적인 점을 탐구할 때는 윤리성과 합리성을 제외하는 특수한 이름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sup>3)</sup> '성스러움'은 본래적으로 윤리나 합리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그 자체적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화를 거치면서 윤리적인 도식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뉘앙스를 벗겨내면서 새로운 명칭으로 성스러움의 본래적 의미가 되살아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스러움』에서 보여주는 오토의 관심사는 종교에 대한 정교한 철학적인 설명이나 교리적 체계와는 먼, 인간의 종교경험에 대한 심리주의적인 묘사였다. 종교 경험을 하는 인간의 감정을 눈에 잡힐 듯이 유려한 문체와 생생한 표현력으로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 종교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종교 경험을 묘사하는데 있어 그가 사용한 용어와 접근 방식이다.

누미노제(Numinose)적 감정은 성스러움을 경험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멀릴 듯이 무서워하면서도 매혹당하는 신비로운 감정이다. 그것이 모든 종교 경험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보편성,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한 오토의 연구 방식이 얼마나 만큼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학문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일단 별도로 하자. 오토가 사용한 접근방식과 분석의 틀에 집중하여 보았을 때,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지는 (정확히 말하면 오토가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간주했던) 종교적인 경험의 범주를 상정했다는 것, 그것을 개념화하기 위해 심리철학적인 용어를 고안했다는 것, 종교를 연구할 때 신적의 것의 본질에 대한 종교의 내적이고 도그마적인 논리보다는 인간에게 표현되는 방식에 주목했다는 점, 그리고 이 개념들을 여러 종교 현상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당시와 그 이후의 종교 연구에 큰 차극을 주었다. '성스러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누미노제적 감정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완전히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자류적인 범주

2) 루돌프 오토, 길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신관념에 있어서의 비합리적 요소 그리고 그것과 합리적 요소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도 출판사, 1987, 51-52쪽. Rudolf Otto, *Das Heilige*, p. 7.

한국어 번역 역시 1963년판 독일어 『Das Heilige』(각주 1 참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 『성스러움』의 일부분을 직접 인용할 때는, 번역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그리고 종교학 연구의 연속성을 지지한다는 의지에서, 한국어판 번역 『성스러움의 의미. 신관념에 있어서의 비합리적 요소 그리고 그것과 합리적 요소와의 관계에 대하여』를 사용하겠다.

3) Rudolf Otto, *Das Heilige*, p. 6.

(sui generis)가 되고, 모든 그만의 자생적이고 원류적인 것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나름의 학문 분야가 생기듯이, 성스러움을 연구하는 학문분과, 즉 그가 이해하는 '종교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토는 이 성스러움을 느끼는 '누멘적 감각(sensus numinis)'이 인간이라면 선협적으로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을 전제한 후대 종교 현상학자들의 입장을 선구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sup>4)</sup>

## 2. 누멘적 감각(Sensus Numinis)

오토가 사용한 '누미노제'<sup>5)</sup>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일까? 라틴어 누멘(Numen)은 오래 전부터 사용된 용어이다. 로마시대의 종교적 맥락에서 누멘은 신들의 특징이나 신 자체를 지칭했다.<sup>6)</sup> 라틴어인 누멘의 기원은 현대 독일어에서 '새로운'을 뜻하는 노이(neu)에서 왔다고 언어학자들은 설명한다.<sup>7)</sup> 인도 게르만어인 '노이(neu)'의 원래적 의미는 '움직임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다.<sup>8)</sup>

누멘(Numen)이라는 라틴어 명사에서 누멘적인 것이라는 형용사인 '누미노스(numinos)'와 '누미뇌스(numinös)'라는 독일어 단어를 끌어낸 것은 오토의 창작품이다.<sup>9)</sup> 그리고 이 용어를 성스러움의 속성을 지칭하는 기술적 용어인 '누미노제(Das Numinose/Numinöse)'로 만든 것 또한 오토의 공로이다.

그러나 오토 스스로도 『성스러움』의 출간 이후 인정하고 있듯이 '누미노제'는 '누멘적 감각(Sensus Numinis)'보다 후기에 출현한 말이다. 오토가 『성스러움』에서 강조한, 누멘적 감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토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 사

4) 길회성은 『성스러움』의 번역 서문(14쪽)에서, 누멘적 감각(sensus numinis)이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의 논의와 맞닿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5)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에 대한 근래의 연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Todd A. Gooch, *The Numinous and Modernity. An Interpretation of Rudolf Otto's Philosophy of Religio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특히 4장의 I. 종교적 가치의 독립적 범주로서의 누미노제(The Numinous as an Independent Category of Religious Value)와 II. 누미노제의 다양한 순간들(The Various Moments of the Numinous) 참고.

6) Ulrich Berner, "Numen", *Handbuch religionswissenschaftlicher Grundbegriffe* (Hg. Hubert Cancik u.a.) Band IV, Stuttgart: W. Kohlhammer, 1998, p. 251.

7) Ulrich Berner, "Numen", p. 250.

8) Ulrich Berner, "Numen", p. 250.

9) 『성스러움』에서 오토는 오멘(omen)이라는 단어에서 오멘적인 것(ominös)를 만들 수 있듯이 누멘(numen)에서 누멘적인 것(numinös)를 형성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Rudolf Otto, *Das Heilige*, pp. 6-7.

실을 자각하면서 오토는 『성스러움』의 개정판을 내면서 새롭게 각주를 달았다. 책 서두의 한 각주에서 누멘적인 감각이라는 새로운 평가와 가치의 범주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그 자신이 아니었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0)</sup> 누멘적인 감각 혹은 누멘적인 감정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센수스 누미니스(Sensus Numinis)'는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을까? 그 최초의 사람은 바로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폰 켄젠크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였다.<sup>11)</sup> 자세히 살펴보자.

1917년 첫 출간된 오토의 『성스러움』은 여러 번 개정판이 나오면서 각주가 대대적으로 보충되고, 원작 뒤에 부록으로 논문들이 첨가되기 시작했다. 개정판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여 책을 두껍게 만들기보다는, 부록을 한 권의 독립된 책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오토는 1923년에 『누미노제와 관련된 논문들(Aufsätze, das Numinose betreffend)』을 펴냈다. 이 논문집은 4쇄 때 또 다시 두 권의 독립된 책으로 출판되었다. 한 권은 종교연구 시리즈의 일환으로 나온 『완전히 다른 것(Das ganz Andere)』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한 권은 『죄와 원죄(Sünde und Urschuld)』라는 제목의 신학 시리즈로 발간되었다.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은 『성스러움』에서 누미노제의 속성이 인간 영역의 다른 차원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류적인 것임을 얘기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다. 원작 『성스러움』과 연계를 가지고 누미노제에 대한 논문들의 재판을 거듭한 책인이 『완전히 다른 것』 역시 내용적 보충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출판되다가 5쇄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새로운 이름의 책으로 탄생되었다.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누멘적 감각)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1932)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성스러움』에 대한 전세계적인 열렬한 호응과 그 활발한 논의에 대한 오토의 대답으로 볼 수 있다. 누미노제를 보충하면서 쓰여진 첫 번째 논문집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두 번째 저서가 '초세상적인 감정'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낯선 용어인 '누미노제' 대신에 기존에 있는 용어로 이 개념을 가장 근접하게 풀이했을 때 오토 스스로 선택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 두 권의 저서는 앞으로 『성스러움』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보아야 할 중요한 작품들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완전히 다른 것(Das ganz Andere)』의 수정판인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

10) Rudolf Otto, *Das Heilige*, p. 7의 각주 1번.

11) 『성스러움』의 개정판에서 오토 스스로 누멘적 감각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은 그 자신이 아니고 켄젠크도르프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실을 오토는 『성스러움』이 발간된 후에서야 뒤늦게 읽고 알았다고 쓰고 있다. Rudolf Otto, *Das Heilige*, p. 7의 각주 1번.

(Gefühl des Überweltlichen)은 아주 중요하다. 오토는 원작 『성스러움』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보충했다. 그리고 이 책에 의거해서 그 이후에 출간된 원작 『성스러움』의 개정판 각주를 보충했다. 『성스러움』의 각주를 보면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을 인용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설명서로 나온 책이 원전의 개정판을 쓰면서 역으로 다시 원전 안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은 무엇보다도 인도 종교사의 예를 통해서 누미노제적인 감정을 종교사적으로 입증하려고 한 오토의 노력이 절실히 느껴지는 저서이다. 인도 종교사에서 누미노제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용된 신들의 이름과 음(Om, Aum, Aun)과 같은 언어, 그리고 일본 선불교에서 나타나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경험을 누미노제의 속성인 초합리성과 연관지은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sup>12)</sup>

앞으로 오토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본고에서 계속적으로 인용의 출처가 되는 것이 이 작품,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이다. 이 책의 첫 장을 장식하는 것은 ‘누멘적인 감각(Sensus Numinis)의 발견자로서의 찐ENCEDОРФ’이다. 오늘날까지 상당수의 종교학이나 신학 연구자들이 누미노제라는 용어가 대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궁금해 하는 것처럼, 오토 역시 『성스러움』의 출간 이후 유행하게 된 이 용어의 출처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해서 답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찐ENCEDОРФ는 18세기 개신교 경건주의(Pietismus)에 속하는 인물이다. 1722년에 독일, 폴란드, 체코의 국경에 있는 동쪽 작센에서 헤른후트 형제단(Herrnhuter Brüdergemeine)을 설립했다. 헤른후트 형제단은 자율성에 기반하여 그리스도교적인 형제애를 지향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공동체였다.<sup>13)</sup> 이 공동체는 특히 종교에 관심 있으면서도 기성 종교에 비판적인 사람들, 소수자나 유대인을 선교 대상으로 삼아서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sup>14)</sup> 오토는 18세기 경건주의파가 인간

12)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32) 7장 ‘누멘적 감각의 원형적 음절과 원형적 용어’(VII. Urlaute und Urtermini des Sensus Numinis, pp. 203–211)와 9장 ‘불교에서 누미노제적 초합리성’(IX. Das Numinos-Irrationale im Buddhismus, pp. 241–260) 참고.

13) E. Beyreuther, “Zinzendorf”,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andwörterbu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dritte Auflage), Tübingen: J.C.B. Mohr, 1963, p. 1913.

14) 찐ENCEDОРФ는 후기에 교회일치 운동을 목표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영국에 거주하던 시절(18세기 중엽)에 웨슬리와 교류를 가지면서 감리교가 탄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백과사전(E. Beyreuther, “Zinzendorf”,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andwörterbuch*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정신세계를 연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중에서도 찐ENCEDO르프는 누미노제 감정의 특별성을 일찍이 알아차리고 거기에 '누멘적 감각(센수스 누미니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오토는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에서 치하하고 있다.<sup>15)</sup>

찐ENCEDO르프 이전에 '누멘(Numen)'이라는 용어는 신학계에서 종종 사용되었다. 특히 정통 루터파 교리가인 요한 프란츠 부데우스(Johann Franz Buddeus, 1667-1729)는 그의 신학 저작(*Institutiones theologicae*, 1723)에서 '누멘'을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sup>16)</sup> 부데우스는 누멘을 기존의 신학계에서 사용했던, 신을 칭하는 개념인 데우스(Deus)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오토의 말을 빌리자면 부데우스를 비롯한 기존의 신학계는 '이미 완성된 도그마적 신관' 안에서 누멘을 이해하고 있었다.<sup>17)</sup>

오토에게 중요한 것은 누멘의 색다른 특성에 있었다. 누멘을 연구해 볼 만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누멘의 "해결되지 않은,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신비주의적인"<sup>18)</sup> 측면이다. 이런 측면의 누멘과 그것을 느끼는 감정인 센수스 누미니스에 대한 관심은 찐ENCEDO르프 이전의 신학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찐ENCEDO르프는 부데우스와 그의 작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가 누멘이라는 용어를 부데우스로부터 차용했을 것이라고 오토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신을 의미했던 활기 없는 전통적인 용어 '누멘'에 새로운 방향의 활기를 주기 시작한 것은 찐ENCEDO르프부터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토는 찐ENCEDO르프의 1745년 12월 9일 교회 총회 발표문을 인용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자연적 생각(Naturelle Gedanken vom Religions-Wesen)'이라는 제목의 글이다.<sup>19)</sup> 그 글에 근거해서 오토는 찐ENCEDO르프를 누멘적 감각의 발견자로 해석하고 있다. 오토의 각주를 믿고 따를다면, 오토는 『성스러움』이 출판(1917년) 된 후 2년 후인 1919년에서야 찐ENCEDO르프의 글을 읽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dritte Auflage), Tübingen: J.C.B. Mohr, 1963) 1914쪽 참고.

15)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32, p. 5.

16)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5.

17)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5.

18)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5.

19) 오토는 찐ENCEDO르프의 상기의 글을 잡지 <형제회 역사(Zeitschrift für Brüdergeschichte)> (1919년, 64쪽부터)에서 읽었다고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의 각주(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Sensus Numinis)*, p. 5, 각주 1번)에서 밝히고 있다.

었다. 그리고 18세기의 이 인물이 자기보다 앞서서 누멘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지만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오토가 새롭게 발견한 찐ENCED로프에 대한 그의 해석을 보기로 하자. 찐ENCED로프는 종교에 대한 교리나 신학이 아닌, 종교가 특징적인 형태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오토는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토는 그를 "종교적 감정의 근원적인 순간과 본질적인 순간을 연구"<sup>20)</sup>하는 '종교현상학'의 초기 선구자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찐ENCED로프는 조심스러움, 경외, 거리감 등을 뜻하는 희랍어 '에우라베아(eulábeia)'에서 누멘적인 감각을 발견했다고 한다.<sup>21)</sup> 그리고 이 감정은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오토가 인용한 찐ENCED로프의 글을 재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많고 적든 내면적인 경외감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이 감정은 대부분 고독할 때 나온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큰 고독이 강력하게 다시 올 때까지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인간이 지니는 이러한 경외감과 공포심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야생의 이교도들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을 누멘적인 감각(sensus numinis)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어떤 우월한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sup>22)</sup>

칸트적으로 설명하면 누멘적인 감각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생각'이나 '선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Vorstellen-können a priori)'의 영역에 속한다.<sup>23)</sup> 그것은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인식자의 감각으로 수동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식자가 감각되어질 만한 것과 맞부딪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내재적인 감각이 일깨워지는 것에 가깝다. 인식자는 그와 동시에 그 감각을 일깨운 사물과 연관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오토가 해석한 찐ENCED로프의 글에 대입해서 다시 말하자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누멘적 감각을 활기하게끔 하는 신적 대상(우월한 절대적인 것)이 그 감각을 자극하게 될 때 인간의 종교경험은 가능해진다.

'가장 멀리 떨어진 이교도들'에 대한 찐ENCED로프의 상기의 인용문이 말하듯이, 누멘적 감각은 원시종교에서 특별히 잘 관찰될 수 있다. 동굴, 산 봉우리, 바위와

20)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5.

21)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6.

22)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6.

23)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7.

같은 자연물에서 신비하고 특별한 힘을 체험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멘적 감각으로서 가능한 일이다. 찐ENCED도르프는 이것을 직감(Ahndung)의 영역으로, 이미 ‘존재하는 누멘의 감지(Wittern des gewahrten numinis)’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감지한다(Wittern)’는 말은 이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인 ‘냄새를 맡는다’를 떠올렸을 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가 끙끙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후각이 있기 때문이다. 누멘적 감각은 후각과 비슷하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밤에 들판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야생의 이교도들” 모두에게 존재한다.<sup>24)</sup> 찐ENCED도르프는 이것을 곧 희랍어 ‘에우라베아’와 연관시켜서 “에우라베아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거나, 밤에 들판에 나가거나, 성찬 전례를 받으러 갈 때 조심스러워하는 것이다”<sup>25)</sup>라고 쓰고 있다. 찐ENCED도르프는 에우라베아라고 하는 이런 경외로운 감정을 ‘종교적(religieus)’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오토는 상기의 글에 나타난 찐ENCED도르프의 누멘적 감각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누미노제적 감정과 거의 흡사하다고 해석하면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찐ENCED도르프가 글의 말미에서 너무나 빠르게 일반화시켜서 “인간에게 있어 존재하는 누멘적인 것이 감지되는 것은 묵상적 기도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누멘적 감정을 그리스도교의 묵상적인 기도(Andacht)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sup>26)</sup>

계시종교인 그리스도교 역시 이런 의미에서 누멘적 감각과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이 된다. 찐ENCED도르프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신에 대한 직감과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즉 아주 약간의 누멘적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비되어 있을 때에 믿음(보다 높은 차원의 계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sup>27)</sup> 이 구절에 대해서 오토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첫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대상과 직면하여 누멘적인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오토는 그것을 일반적인 “종교적 기질(religiöse Veranlagung)”<sup>28)</sup>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궁극적인 목표(불교의 해탈,

24)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8.

25)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8.

26)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8.

27)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8.

28)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p. 8-9.

그리스도교의 천국이나 구원)를 제공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Heils-glaube)’과 그에 대한 경험은 이런 일반적인 종교적 기질이 기반이 된 후에, 특정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그 시대에 어울리게 발전되어 온 것이다. 오토는 우주적인 차원의 합일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도의 ‘고등 종교’나 “영원한 봉다의 마음”을 관조하고 니르바나를 추구하는 불교는 단순한 누미노제 감정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했다.<sup>29)</sup> 누미노제 감정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종교적 선형조건이자 필수요소이다. 소위 ‘구원 종교’는 당면한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누미노제 감정이 특수하게 적용되어 발전되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확인되었듯이 오토에 의해서 해석된 찐ENCED도르프의 종교관은 오토 자신의 것과 거의 흡사하다. 오토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존재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직 ‘신’이 될 수 없는 것”<sup>30)</sup>이다. ‘신’은 사람들에게 “놀랍고 경이로운 존재(Wunderwesen)”일 때야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1)</sup> 오토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은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대단한 ‘그것(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 놀라운 존재’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서만 그 존재적 본질에 다소나마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적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인, “누미노제적인 존재, 누미노제적인 힘, 그리고 누미노제적인 존재양식”<sup>32)</sup>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적 방식이 된다.

이러한 자기 진술에 근거해 볼 때, 오토는 학적으로 경건주의에서 나온 두 명의 헤른후트 형제단에게 학문적 빚을 지고 있다. 한 명은 과거에서 새롭게 건져 올린 인물인 찐ENCED도르프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주지하다시피 오토에게 커다란 학문적인 발자취를 남겼던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이다.<sup>33)</sup> 오토의 해석에 따르자면 찐ENCED도르프의 ‘감각(sensus)’에 대

29)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9.

필립 알몬드(Philip C. Almond)는 다음의 논문에서 오토가 불교 승려의 해탈(Nirvana) 경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일종의 누미노제적인 종교경험으로 분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Philip C. Almond, "Rudolf Otto and Buddhism", in: Peter Masefield & Donald Wiebe, *Aspects of Religion. Essays in Honour of Ninian Smart* (Toronto Studies in Religion vol. 18), New York: Peter Lang, 1994, pp. 59-71.

30)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p. 2-3.

31)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3.

32)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3.

33) 오토의 「성스러움」은 슐라이어마허가 저서 『종교론(Reden über die Religion)』에서 종교를 인간의 의존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설명한 것의 학문적 연장선에 있다.

한 강조가 슬라이어마허의 ‘감정(Gefühl)’의 연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슬라이어마허가 『종교론』에서 일반적인 초월적 경험과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개념을 선후 단계로 연결시킨 것은, 찐ENCED도르프가 계시에 대한 믿음의 선행 조건으로서 누멘적 감각을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고 있다. 오토는 슬라이어마허가 강조한 의존적 감정 역시 찐ENCED도르프가 주장하고 있는, 신적 대상에 대한 누멘적인 감각의 명백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sup>34)</sup>

이렇게 본다면 오토의 『성스러움』은 찐ENCED도르프-슬라이어마허-오토로 이어지는 학적 연장선에 있다. 오토의 저서에서 나오는 진술에 따르면, 찐ENCED도르프의 누멘적인 감정을 알게 된 것은 『성스러움』이 발간된 이후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오토가 즐겨 얘기했고 회자되고 있는, 『성스러움』 집필의 착안점은 언제였을까? 이야기는 조금 앞선,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3. 루돌프 오토의 북아프리카 여행이 가지는 의미

오토는 『성스러움』에 대한 영감을 1911년의 세계 여행에서 얻었다고 말하곤 했다. 이것은 오토와 같은 대학에 있었던 동료 학자들이 증언하며, 이 ‘무용담’은 신학과와 종교학과의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명작의 영감을 얻은 오토의 북아프리카 여행’으로서 기억되고 있다.<sup>35)</sup>

1911년 루돌프 오토는 생애 처음으로 유럽 밖으로 여행할 기회를 얻었다. 젊은 독일 학자를 지원하는 프로이센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서 오토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인도, 중국, 일본)를 돌아보았다. 이 여행은 기독교 조직 신학자 오토에게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와 유럽 밖의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촉발시킨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토 스스로가 이 여행의 경험을 몇 년 후 출판될 『성스러움』(1917)을 기획하게 된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오토는 여행 중에 자신의 경험담을 신학 잡지 ‘기독세계(Die Christliche Welt)’에 편지 형식으로 보냈다. 오토가 여행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이 잡지에 실린 글 덕분에 지금까

34)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p. 9-10.

35) 필자는 2009년 4월에 마부르크 대학의 구약학자 오토 카이저(Otto Kaiser 1924-)와 루돌프 오토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 그는 오토의 강의를 직접 들은 세대에 속하지는 않지만, 루돌프 불트만(1884-1976)을 통해서 오토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현재 학계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학자이다. 오토 카이저가 신학과와 종교사 수업시간에 승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오토가 북아프리카 여행에서 유대교 시나고그에 갔다가 어떤 핍비가 ‘성스러움’이란 단어를 발설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이후 그 경험은 같은 이름의 책으로 탄생된 것이라고 필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지 꽤 자세하게 추적해 볼 수 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록은 1911년 7월 27일에 실린 잡지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토는 어느 유대교 안식일에 현지 여행 가이드로 추정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모로코의 한 도시 모가도르(Mogador, 모로코 서쪽 해안의 도시. 오늘날에는 엣사우이라(Essaouira)라고 불림)에 있는 한 시나고그를 방문한다. 낡고 작고 침침한 이 시나고그에서 그는 기도 소리와 경전 읽는 소리를 듣는다. 오토는 멜로디 섞인 이 음절의 나열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만둔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단어를 듣고 강렬한 감정을 얻는다. 이 흥미진진한 여행기록의 첫 부분을 살펴보자.

반은 어두움에 잠긴 한 작은 시나고그의 내부. 길이는 10미터도 되지 않고, 너비는 5미터도 채 안된다. 천장 위에서 연기가 나는 불빛이 흘러내리고 있다. 벽을 둘러싸고 있는 갈색의 벽조각들에 걸려있는 30개의 기름램프에서 짙은 연기가 자욱하다. 앉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걸상이 벽을 뻗 둘러싸고 놓여 있는데 탁발 수도승들이 있는 성가대 자리 또한 그렇다. 좁은 벽에 높은 성유물함이 있고, 중앙에는 강론대과 더불어 작은 제단이 놓여 있다.

하임 엘 말렉(Chajjim el Malek, [현지 여행 안내원 이름으로 추측:번역자] )이 나를 계토의 미로와 같은 작은 골목을 거쳐서, 두 개의 좁고 희미한 계단을 넘어 여기로 인도한 것이다. 옛날 풍의 시나고그는 아직 서방세계의 손이 닿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런 종류의 시나고그가 40개 있다. 대부분은 개인 소유이거나 가정 예배당처럼 개인집 안에 위치하고 있다. 랍비나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기도장소나 탈무드 학교로 사용되기도 한다. 오늘은 안식일이기에 이 어둡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현관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소리와 경전 낭독소리를 듣는다. 반은 노래, 반은 말하는 듯한 콧소리의 음조있는 목소리는 시나고그로부터 그리스도 교회와 이슬람 사원이 물려받은 것이다. 그 음조는 듣기에 좋고, 듣고 있노라면 곧, 음악에서 중심 악상이 일정하게 바뀌면서 이어지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의 조바꿈과 음의 높낮이를 구별하게 된다. 내 귀가 그 단어들을 구별하고 이해하려고 부질없이 노력하다가 그 노력을 포기할 즈음 이었다. 갑자기 구별 안되는 여러 목소리가 사라졌다. 장엄한 전율이 일제히, 또렷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사지를 관통했다.

카도쉬, 카도쉬, 카도쉬 엘로힘 아도나이 제바오토  
(Kadosch, Kadosch, Kadosch Elohim Adonai Zebaoth)  
말레우 하샤마임 와하레즈 캐보도!  
(Male' u haschamajim wahaarez kebodo!)

나는 성베드로 성당의 초기경들이 거룩하시다(상투스;Sanctus),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를 낭송하는 것을 들었고, (모스코바) 크렘린궁의 교회에서 스비앗(Swiat), 스비앗, 스비앗을, 예루살렘의 대주교에게서 하기오스(Hagios), 하기오스, 하기오스를 들었다.

어떤 언어로 불리우든지 이 단어는 인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말이다. 영혼의 가장 근저에서부터, 강렬한 전율과 함께 홍분시키고 감동을 주면서 밀바닥에서 잡자고 있는 초월적인 것의 비밀을 파고든다. 바로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소에서 예사 야로부터 시작된 언어가 울려퍼지고, 바로 이 민족의 입술에서, 그들이 최초로 물려준 유산이 바로 이것 [성스러움이라는 말: 번역자 주] 이다.<sup>36)</sup>

북아프리카 여행에서 우연히 찾아간 한 유대교의 시나고그에서 오토는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카도쉬라는 ‘성스럽다’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장엄한 전율이 그의 사지를 관통했다. 필자는 이 체험을 종교적 체험이라기보다는 학문적 발견의 전율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설명에서 오토는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언어는 다르더라도 다양한 종교를 관통하고 있다는 체험(자신의 귀로 직접 들은 체험)에 대한 인식론적 기쁨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도쉬(히브리어)-상투스(라틴어)-스비앗(슬라브어)-하기오스(그리스어)로 이어지는 인류의 ‘성스러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통찰적 감동이었다. 다양한 종교가 언어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연결시키는 듯한, 종교 내적인 연관성의 발견이 저서 『성스러움』의 집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경험은 『성스러움』의 초입부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나마 제시하고자 하는 바, 즉 느끼게 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에 본래적으로 가장 내적인 핵심으로서 살아 있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어떤 종교도 가히 종교라 부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셈족의 종교들 가운데서, 그중에서도 특히 성서적 종교 안에, 뛰어난 힘을 갖고 살아있다. 그것은 이 성서적 종교에서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다. 곧 ‘카도쉬’ (qādōsch)라는 말로서, 희랍어의 ‘하기오스’ (hagios)와 라틴어의 ‘상투스’ (sanctus),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싸체르’ (sacer)라는 말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스럽다’라고 번역하는 것이다.<sup>37)</sup>

북아프리카 여행에서 오토는 ‘성스러움’의 공통성에 대한 언어적 공통성을 몸소 체험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여행은 오토에게 신학에서 종교학적 관심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36) 이 여행기록은 ‘길에 대하여(Vom Wege)’라는 제목으로 <기독세계> 25호에 실려있다. Die Christliche Welt(Hg. Martin Rade) 25 (am 27. 07 1911), Nr.30, Sp.708.

37)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신관념에 있어서의 비합리적 요소 그리고 그것과 합리적 요소와의 관계에 대하여』, 38쪽. Rudolf Otto, *Das Heilige*, p. 6.

#### 4. 종교학사적인 설명: 자연주의적인 진화론 대 자연주의적 누미노제

오토의 글을 보면 『성스러움』과 그 수정판을 낸 이유에는 당시 유행하던 종교 이론에 대한 불만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읽혀진다. 그는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진화론적인 종교이론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기의 저서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의 서문은 애니미즘과 마나이즘을 위시한 선애니미즘 이론에 대한 문제 제기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종교의 역사적 기원에 관해서 학자들 사이에 애니미즘과 선애니미즘(마나이즘) 이론이 팽배하고 있다. 이 이론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신들’에 대한 ‘환상’이 생겨났는가 하는 점이다. 태초에 ‘영혼(animae)’에 대한 상상이 환상을 만들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도이다. [...]

이에 반해서 우리의 주장은 “종교는 스스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종교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상태로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종교가 초기적인 신에 대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변화했다는 것을: 번역자 첨가]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주장은 종교의 발전 단계 처음부터 이 요소가 있어야지만 종교가 되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요소만으로 ‘종교라는 존재’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종교의 모든 단계와 그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sup>38)</sup>

오토는 이어서, 이 기본적인 요소가 성숙한 신앙에도 있고, 신비적인 합일의 경험에도 있고, 원시적인 “날것의” 감정에도 들어 있는데, 여타의 감정과는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9)</sup> 이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어떤 개념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토는 기존의 지배적 학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누미노제적 감정’이다. 오토가 쓴 글을 직접 보자.

우리는 이런 순간을 누미노제적 감정(das numinose Gefühl)이라고 부른다. 이 감정은 허구로 만들어 내거나 발견된 것이 아니다. 이미 쭈첸도르프는 명확하게 그 특성을 파악했고 그것을 종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미 여기에 우리가 부르는 것과 같은 이름을 붙였는데, 마찬가지로 [누멘에: 번역자 첨가] 형용사적인 변용을 가해서 ‘누멘적 감각’ (sensus numinis)이라고 불렀다. [...] 이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각이 아니고 명확하지 않은 실재적인 생각(느낌)이다. 자연물에 대한 환상으로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모

38)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1.

39)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p. 1-2.

든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과는 완전히 낮설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것이다. 처음에는 어떤 이름이나 개념도 부여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하나의 표의(Ideogramm)로서 초자연적(übernatürlich), 탈속적(überweltlich), 저 세상(jenseitig)과 같은 말로 점점 더 명확한 개념으로 분명해졌던 것이다.<sup>40)</sup>

초기 종교학의 이론에서는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 비인격적인 힘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서 그것을 지칭하는 학문적 명칭을 개발했다. 마나(Mana)나 오렌다(Orenda)가 그 예이다. 오토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 일종의 '상상'이며, 그 상상된 '환상'의 구성적 시초를 알기 위해서 기원을 연구하는 작업을 불만족스러워했다. 종교가 초기에 상상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의 종교로 변화되어 왔다는 학설에 동의할 수 없었다. 오토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종교에는 '누미노제적' 감정이 있었다. 이 원초적인 감정은 그에 대한 개념적 용어가 없었던 시절에도 존재하는, 종교를 종교답게 만드는 본질적 요소이다. 그를 설명하는 초월성과 같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차적으로 생겼다. 그런 개념들 뒤에 숨겨져 있는 종교의 핵심은 바로 '센수스 누미니스'이다. 켄젠통 르프와 오토는 이 원형적인 감각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의 본래적 모습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오토가 마나나 오렌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하는 누미노제적 감정은 처음부터 존재했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스스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항하면서 제시하는 누미노제라는 개념 역시 마나처럼 일종의 강력한 자연적 힘으로 느껴진다. 본고 본론의 첫 장(II. 1. 『성스러움』과 누미노제)에서 인용한 『성스러움』의 일부분을 다시 한 번 보자.<sup>41)</sup> 인간에게 독특한 공포감을 선사하는 누멘의 "무시무시함"은 "찬물을 끼얹는 소름을 끼치게" 하거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오토에게 이런 종교적 경험은 인간이 선형적으로 지니는 누멘적 감각으로서 실재하는 것이지 결코 만들어진 상상물이 아니다. 동시에 그 누멘적 공포는 인간의 "골수를 파고들며 머리카락이 치솟고 사지가 떨리는" 것처럼 생물학적, 자연적인 반응과 흡사하다. 즉 오토 또한 누미노제의 존재성을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누미노제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해석과 더불어 오토와 당대의 원시종교 이론이 가지는 일종의 암묵적인 공유지점 또한 지적될 수 있다. 오토가 북아프리카 여행에서 체험한 '성스러움'에 대한 통찰은 일단은 유일신교 전통에서 나왔지만, 인도

40)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p. 1-2.

41)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신관념에 있어서의 비합리적 요소 그리고 그것과 합리적 요소와의 관계에 대하여』, 51-52쪽. Rudolf Otto, *Das Heilige*, p. 7.

종교와 불교에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핵심인 센수스 누미니스는 원시 종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시인들이 자연물에서 특별한 힘을 체험하는 것에서 누멘적인 감각의 부인할 수 없는 실재성을 증명했던 것처럼(2. 누멘적인 감각 참고) 오토는 원시 종교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도, 그 이론들과 통하는 당대의 지적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가 북아프리카 여행에서 체험한 '성스러움'에 대한 통찰은 일단은 유일신교 전통에서 나왔지만, 인도 종교와 불교에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핵심인 센수스 누미니스는 원시 종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원시종교 이론과 누미노제와의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오토의 논의를 차별시켜 본다면, 그는 누미노제는 힘에 대한 구성적 상상을 부정하고 누멘적인 것의 실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저서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에서 찐ENCEDOERP의 종교이론을 설명하는 중, 누멘적 감정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목상적인 기도는 실재에 대한 명확한 체험(Realitätserlebnis)이며 인식된 사실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지 단지 꿈꾼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sup>42)</sup> 이 또한 찐ENCEDOERP라는 고전에 기대어서 진화론적 종교이론을 비판한 것이다.

사실 오토는 『성스러움』의 집필 이전에 오랫동안 진화론과 대결해 왔다. 저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Naturalistische und religiöse Weltansicht)』(1904)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오토는 다원이즘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비판하고 있고, 그 이론에 근거하여 종교를 설명하는 것 역시 그릇된 오류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43)</sup> 초기 저작인 이 책은 진화론에 기반한 원시종교 이론을 비판하면서도, 아직까지 그에 대항할 오토의 종교이론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절에 집필되었다. 『성스러움』에 이르러서야 그는 종교가 상상이 아닌 실재적 기본 요소임을 증명하는 '누미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태초의 종교가 허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지만, 오토 또한 종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성스러움』을 자세하게 읽어 본다면, 책 전반을 통해서 드러나는 오토의 주장이다. 누멘적인, 어둡고 원초적인 종교 감정은 모든 종교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것이지만, 고차원적인 철학체계를 가진 인도종교, 불교나 그리스도교와 같은 세계 종교(오토는 '구원종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그 원초성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시대적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윤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오토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측면과

42) Rudolf Otto,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p. 8.

43) Rudolf Otto, *Naturalistische und religiöse Weltansicht*, Tübingen: C.J.B. Mohr, 1904. 이 책의 4, 6, 7장 참고.

누멘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이 잘 조화된 이러한 종교들을 가장 이상적인 종교로 간주했다.

### III. 결론

언어적 재능과 문학적 소질이 있었던 오토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개념 '누멘'에서부터 독일어 형용사 '누멘적인 것', 즉 '누미노제'를 이끌어 냈다. 오토식 표현대로 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 언어로 표현불가능한 감정을 '누미노제'라는 이름으로 포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누미노제의 발견'은 『성스러움』의 개정판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 자신의 발견이 아니다. 『성스러움』이 발간되기 근 200년 전에 경건주의 전통의 천젠도르프는 '누멘적 감각'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 누멘을 형용사화시켜서 라틴어 소유격 누미누스(누멘적)라고 명명한 것은, 오토가 누멘에서 독일어 형용사 '누미노제'를 이끌어 낸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오토의 누미노제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오토처럼 이 개념을 전방위적으로 폭넓고 자세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적어도 오토는 후기의 작품에서 천젠도르프를 자신보다 앞서 '별별 떨게하는 무섭고도 매혹적인' 누멘의 발견자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 현상학'은 이런 누멘적인 것을 포착하는 인간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말한다. 인간의 종교적 감정은 원시종교 이론이 주장하듯이 '상상'이 아니고 인간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오토는 초합리적인 신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신이나 '성스러움'이라는 익숙해진 용어 대신, 개념을 낯설게 만드는 누미노제를 선호했다.

본 논문은 '누미노제' 개념의 기원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맥락화 (Kontextualisierung)하는 작업이었다. 서론에서 『성스러움』의 핵심 개념인 '누미노제' 용어와 그에 대한 생각이 오토의 창작물인지를 물어 보았다. 앞으로 더욱 심화된 연구를 필요로 하겠지만, 본고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누멘이라는 라틴어에서 독일어 누미노제를 만들고, 종교 연구의 기술적인 언어로 사용한 것은 오토의 창작물이다. 그러나 누미노제적인 감정은 천젠도르프의 '누멘적 감각(센수스 누미니스)'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천젠도르프가 누멘적 감각의 발견자라면 오토는 발전적 계승자로 볼 수 있다. 오토는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 출간 100년을 맞이하여 머리말과 함께 그 책을 새로 출판할 만큼, 오토에게 슐라이어마허는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빼놓

을 수 없는 인물이다. 슐라이어마허 역시 ‘헤른후트’파로서, 찐ENCED도르프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오토는 찐ENCED도르프의 종교이론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헤른후트파를 위시한 경건주의와 오토의 종교이론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이 앞으로 좋은 연구의 방향이 될 것 같다.

1911년 북아프리카 여행에서 얻은 오토의 영감은, 종교의 본질적 특성이 종교와 문화권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사성은 다른 언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성스러움’이라는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음에 대한 전율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비록 역사적으로 얹혀있는 아브라함 종교들 사이에서의 발견이었지만, 그 이후 오토의 관심은 인도 종교로 확대되어서 ‘성스러움’과 ‘누미노제’의 보편적 내재를 확인하는 야심찬 기획으로 발전되어갔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오토를 종교학사에서 진화론적 원시종교 이론의 반대자로서 새롭게 위치시키려고 시도했다. 오토는 종교의 기원이 인간의 상상이라는 일종의 인간중심적인 해석(anthropocentrism)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항하는 종교 개념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창안된 것이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하지 않고, 늘 내재되어 있는 ‘성스러움’, 즉 ‘누미노제’이다.

주제어: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 누미노제, 찐ENCED도르프, 감정, 종교, 센수스 누미니스

원고접수일: 2012년 5월 26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0일

## 참고문헌

### 1. 루돌프 오토 저서

Otto, Rudolf, *Naturalistische und religiöse Weltansicht*, Tübingen: C.J.B. Mohr, 1904.

Otto, Rudolf, "Vom Wege", *Die Christliche Welt* (Hg. Martin Rade) 25 (am 27. 07 1911), Nr. 30, Sp. 708, 1911.

Otto, Rudolf, *Das Heilige. Ü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öttlichen und sein Verhältnis zum Rationalen*, München: C. H. Beck, 1963[1917].

번역) 루돌프 오토, 길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신관념에 있어서의 비합리적 요소 그리고 그것과 합리적 요소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도 출판사, 1987.

Otto, Rudolf, *Aufsätze. Das Numinose betreffend*, Stuttgart: Friedrich Andreas Perthes A. - G., 1923.

Otto, Rudolf,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32.

### 2. 누미노제에 대한 이차문헌

Almond, Philip C., "Rudolf Otto and Buddhism", in: Peter Masefield & Donald Wiebe, *Aspects of Religion. Essays in Honour of Ninian Smart* (Toronto Studies in Religion vol. 18), New York: Peter Lang, 1994, pp. 59-71.

Gooch, Todd A. *The Numinous and Modernity. An Interpretation of Rudolf Otto's Philosophy of Religio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 3. 백과사전

Berner, Ulrich, "Numen", *Handbuch religionswissenschaftlicher Grundbegriffe* (Hg. Hubert Cancik u.a.) Band IV, Stuttgart: W. Kohlhammer, 1998.

Beyreuther, E., "Zinzendorf",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andwörterbuch für Theologie und Religionswissenschaft* (dritte Auflage), Tübingen: J.C.B. Mohr, 1963.

<Abstract>

# The Contextualization of the Development of Rudolf Otto's *Das Heilige*: In Search of the Origin of "das Numinose"

Jeong Hwa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following question: Is "das Numinose" the core concept of Rudolf Otto's main work *Das Heilige* ultimately Otto's own invention or can it be traced back to the influence of other, previous scholars? It is the author's aim to reconstruct the origin of this core concept and to thereby contextualize Otto's work and his thoughts more profoundly.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of origin I first attempt to review Otto's own remarks and explanations on the concept of "das Numinose", turning my attention especially on his work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Sensus Numinis)*. Second, I consider Otto's journey to North Africa as the crucial moment of inspiration in his pursuit of understanding "the holy" and in eventually writing *Das Heilige*. Third, I propose a way to explain the historical embeddedness of the thoughts expressed therein within the Study of Religion as an academic field.

By analyzing *Das Heilige* and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I came to realize that the category of "das Numinose" itself was preceded by the idea of a "Sensus Numinis". The latter concept had been used for the first time by Nikolaus von Zinzendorf (1700-1760), leading figure of the Herrnhut Brethren, thus stemming from within the tradition of 18th century pietism. In this regard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Das*

*Heilige* should be seen and understood as being rooted in and belonging to the tradition of Zinzendorf and Schleiermacher.

Besides this connection I realized that Otto's stay in North Africa should be regarded as the crucial moment when he, deeply impressed by his experience in a Moroccan synagogue, concluded that despite all observable differences between various religious traditions they were all at core related to each other by the notion of "the holy".

Finally, I try to locate Otto within the history of the Study of Religion as an opponent to all theorizing about "primitive religion" as well as to Darwinism. His critique of these approaches is aimed mainly at the idea, that the origin of religion is to be found in primal human imagination. By formulating the concept of "das Numinose" Otto tried to find a way to develop a counter-concept against any such stances of anthropocentrism, thus emphasizing the idea that at the core of religion one is not to find human imagination but the eternal and uncreated "holy", that is "das Numinose".

Key Words: Rudolf Otto, *Das Heilige*, das Numinose, Zinzendorf, Gefühl, Religion, Sensus Numinis